



한양대학교

답안지 (인문계)

답안지 바코드



201374

지원 학과

성 명

수험 번호

생년월일
(예:980301)

수험생 유의 사항

1. 답안지는 검정색 펜(볼펜, 연필, 샤프)으로 작성하십시오.
(빨간색이나 파란색 사용금지)
2.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지우개(연필, 샤프 사용 시)를 사용하거나
두 줄을 긋고(볼펜 사용 시) 그 위에 재 작성하십시오.
3.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한 답안지는 "0"점 처리 됩니다.
4. 본 고사는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답안지 교체는 가능하지만 기존 답안지 제출은 불가합니다.

제시문 (가)는 부당한 절차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부는 정당하다고 말한다. 따라서 르빈후드 각본처럼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층을 돕는 행위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자발적 강압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.

제시문 (나)는 현존하는 소득과 분배가 천부적 자산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. 천부적 자산에 따라 소득과 분배가 특정 한 집단에 유·불리가 집중되는 것은 사회적,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, 천부적 재능은 공동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쓰일 때 그 가치가 있다.

제시문 (가)와 (나)의 공통점은 사회적,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을 사회 구조 상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는 것이다. 천부적이든 노력과 성취에 의한 것이든 더 많이 가진 자가 존재함과 동시에 불평등은 시작되기 때문이다. 그러나 제시문 (가)의 주장은 그 불평등이 정당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면, 부를 가진 사람들은 정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줄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. 오히려 부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인위적으로 많이 거두는 행위는 비자발적 강압 행위로써 부자들에게 역차별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. 반면, 제시문 (나)는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익이 따라야 함을 주장한다.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서 한 사회의 공리를 취하는 데에 이용할 때, 천부적으로 유리한 위치의 사람들이 비로소 공정하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.

제시문 (다)의 선행 의지가 강한 주인 여자의 태도를 옹호하기 위해 제시문 (나)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. 제시문 (다)에 등장하는 주인 여자가 선행을 베푸는 대상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독거 노인이자, 그녀는 노인 외 삶이 최소 생계비로는 전혀 개선될 것 같지 않으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노인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. 제시문 (나)에서 언급하였듯이 천부적으로 유리한 위치의 사람들이 불리한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때에 그 위치가 가진 행운의 가치가 생긴다. 더 이상의 노동도 불가능하며, 가족조차 없는 독거노인을 돕는 것을 돕는 사람의 손해라고 생각할 때에 이 사회는 각박한 사회로 남을 것이다. 부자들이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모두를 위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사회적,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. 비록 불평등의 구조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.